

■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 평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이수곤 · 정명현 · 양은배

Perception on curriculum reformation and curriculum evaluation of medical school

Sookon Lee, MD, PhD, MyungHyun Chung, MD, PhD, Eunbae Yang,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Perception on curriculum reformation and curriculum evaluation of medical school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success in curriculum reformation using focus group interview and faculty survey.

Methods: We analyzed the 105 questionnaires that were collected from 450 faculties i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12, 2005. The interview of focus group was conducted to 105 faculty and students using 10 interview

questions from July 25 to August 29, 2005. The data of focus group interview and faculty survey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ile.

Results: 66.7% of faculty have pointed out that it is right a direction of new curriculum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iculum management.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problem in the new curriculum is as follows: 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15.3%), deficiency of faculty understanding(10.5%). The faculty comments on the improvement areas of new curriculum such as curriculum revision(8.6%), efficiency of curriculum management(6.7%), reward and incentive system of education(6.7%). The focus groups pointed out the important factors of curriculum reformation such as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ity between subjects, improvement of student achi-

교신저자 :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전화 : 02-2228-2511, 팩스 : 02-364-5450
Email : nara@yuhs.ac

■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04년도 정책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eventment test, enhanc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 of course director.

Conclusions: It should be concluded, to succeed curriculum reformation, which the purpose of curriculum reformation announces obviously and management group should effort continuously so that professors may understand the new curriculum. The course directors have to 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 operating the subjects and the university should develop the students' evaluation system and faculty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Key Words: Curriculum reformation, Curriculum evaluation, Focus group

서 론

교육과정 평가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가치, 장점 및 단점을 확인하고, 그것의 지속,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Kern et al., 1998).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새롭게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Ornstein & Hunkins(1988)는 교육과정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Stufflebeam(2000)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22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접근 방법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으며, Madaus & Kellagham(2000)도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은 교육과정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정 평가의 어려움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많은 의과대학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Ohrr et al., 2001; Lee et al., 2002; Park & Kim, 2004; Park, 2004), 문제바탕학습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Chagn et al., 2001; Kim et al., 2004)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1-2학년의 기초 및 임상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이 성공적이었는지, 계획된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었다. Kern et al.(1998)은 교육과정 개발의 순환적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hung et al.(2005)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성,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시간 배정의 불합리성, 교수들의 교육 부담 가중 및 교육업적 평가시스템의 불합리성 및 학생 자율학습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였

다. 교수와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적이었는지,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2004년 개선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교육과정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부터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통합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45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5명이 응답(기초의학 35명, 임상의학 70명)하여 23.3%의 회수율을 보였다. 한편, 교

육과정 평가를 위해 4개의 포커스 그룹을 선정하여 2005년 7월 25일부터 2005년 8월 29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각 포커스 그룹별도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과 포커스 그룹의 답변 형태로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참가자 및 진행 일정은 Table I 과 같다.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대학 행정책임자, 교수 및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항목을 분석하여 Table II와 같이 10개의 평가질문을 개발하였다. 이 질문은 연구진을 포함하여 12명의 의과대학 교수가 질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면담 결과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은 내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유목화하고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결 과

가.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교수들이 어느 정도

Table 1. Participants of Focus Group Interview

Focus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Date	July 25, 2005	Aug. 8, 2005	Aug. 22, 2005	Aug. 29, 2005
No. of Participants	17	27	36	25
Characteristics	course directors associate dean	teaching faculty in basic and clinical science	teaching faculty in PBL, selective, society and medicine course	representative of students program coordinators

Table II. Evaluation Questions for Focus Group

Questions
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asic structure of curriculum?
2. Is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ity suitable between subjects ?
3. Is the problem-based learning administered as basic concept and purpose of PBL?
4. Are faculties satisfied with their teaching responsibility?
5. Is the students' achievement test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new curriculum?
6. What are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7. What evidence is there that teaching contents targeted for change have actually changed?
8. Are students achieving basic knowledge and skills, and so on using self-directed learning?
9. Does this curriculum have basic elements, such as human resources, space, necessary teaching materials and supporting system?
10. Does course director have the authorities to adjust subjects?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III과 같다. 교육과정 개편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82.9%의 교수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홍보는 매우 적절했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적절했다는 의견이 각각 27.4%, 44.3%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통합중심, 문제바탕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의견이 34.3%, 보통이라는 의견이 25.7%,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28.6%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수들이 강의 내용과 슬라이드를 변경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51.4%의 교수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2.4%의 교수들은 크게 바꾸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서는 변화의 방향은 맞았으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변화의 방향도 맞았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15.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변화의 방향이 틀렸고 진행상의 문제도 있다는 의견도 9.5%나 있었다.

다.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은 Table IV와 같다. 많은 교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율학습 능력(15.3%)이었으며, 교수들의 이해 부족(10.5%), 강의시간 부족(6.7%),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5.7%), 교육시간 불균형(4.8%), 교육자료 부족(3.8%) 등의 순서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소수의 의

Table III. Faculty's Perception about Curriculum Reformation

Questions	Response	
	N=105	%
1. Do you know the purpose and content of new curriculum?		
Yes	87	82.9
No	17	16.2
No response	1	1.0
2.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publicity activitie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faculty about new curriculum ?		
A great extent	29	27.4
Some extent	47	44.3
Little extent	29	27.3
3. Do you believe that curriculum reformation from conventional curriculum to integrated and problem based curriculum is proper thing?		
Very well	36	34.3
Neutral	27	25.7
Not at all	30	28.6
No response	12	11.4
4. To what extent do you change your teaching contents and slide?		
Fairly well	34	32.4
A little bit	54	51.4
Not at all	8	7.6
No response	9	8.6
5. In your opinion, What defines the curriculum reformation?		
It is wrong a direction of new curriculum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iculum management.	10	9.5
It is right a direction of new curriculum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iculum management.	70	66.7
It is right a direction of new curriculum and there aren't any problems in curriculum management.	16	15.2
No response	9	8.6

견으로는 교수 업무부담 과중, 교육과정의 계속성 부족, 학년간 내용 연계성 부족, 문제바탕학습 편성 시기의 부적절, 블록강의의 비효율성, 교육업적평가 규정 미흡, 선택과목 운영 비효율성, 교수자간 내용 연계성 부족 등의 의

견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6.7%), 교육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6.7%)

등의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교수인식 변화를 위한 교수개발(5.7%),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결과 피드백(5.7%),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 투자(4.8%), 학생평가방법 개선(4.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과목간 사전 협의제도 수립, 학생 자율과 책임 강조, 교수트랙시스템 도입, 교수업적평가시스템 개선, 교수자간 역할 분담 및 업무 경감, 학습가이드 제공, 교수 및 학생 의견 수렴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 포커스 그룹에 의한 교육과정 평가 결과

질문 1 :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구조는 적절한가?

1학년과 2학년의 기초 및 임상 강의가 오전 4시간으로 편성됨으로써 오후까지 실습이 필요한 실험실습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과목의 특성, 교육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설계도 어렵다. 또한, 학사일정이 길고 방학이 짧아 수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 강의를 30~40% 정도 축소한 교육과정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질문 2 : 교과목 상호간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성은 확보되었는가?

교육과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이 되었으나 교육내용 상호간에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들은 과거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강의하고 있다. 즉, 하나의 교과목을 여

러 교수가 나누어서 강의하는 형태이다. 학년별 교과목의 경우에도 외형적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나 1학년과 2학년 교육과정의 연계, 오전 과정과 오후과정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의학교육 기본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강의내용이 누락되고 있다.

질문 3 : 문제바탕학습은 기본적인 개념과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학생들이 문제바탕학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튜터들과 학생들이 문제바탕학습의 의미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바탕학습 진행과정과 평가에서도 조별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튜터들이 진료 시간 등의 이유로 문제바탕학습 시간을 변경하고 있으며, 학습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질문 4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수들의 교육 부담은 적절한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수의 교육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교수들에게 교육 부담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학의 경우 반복되는 시험일정, 분산된 교육시간 등으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육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문제바탕학습이나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제공할 유인이나 동기가 없다.

Table IV. Problems Area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urriculum

Problem areas	N	%	Improvement areas	N	%
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16	15.3	Curriculum revision	9	8.6
Deficiency of faculty's understanding	11	10.5	Efficiency of curriculum management	7	6.7
Lack of teaching hours	7	6.7	Reward and incentive system of education	7	6.7
Loos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al objectives with curriculum	6	5.7	Faculty development for changing of faculty recognition	6	5.7
Unbalance of teaching time among subjects	5	4.8	Feedback about curriculum management and evaluation	6	5.7
Insufficiency of teaching resource	4	3.8	Investment of human resource and finance	5	4.8
Too heavy a burden of faculty	3	2.9	Improvement of student achievement test	5	4.8
Needs for continuation of curriculum	3	2.9	Content consultation before starting subject	4	3.8
Content sequence between freshman and sophomore	3	2.9	Emphasis the student autonomy and responsibility	4	3.8
Inappropriateness of PBL enforcement time	3	2.9	Introduction of faculty track system	4	3.8
Inefficiency of block lecture	3	2.9	Improvement of faculty performance appraisal	3	2.9
Inadequacy of assessment system about faculty's educational activities	3	2.9	Reduction of faculty's workload	3	2.9
Inefficiency of selective courses	3	2.9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guide	2	1.9
Content relevance between faculties	2	1.9	Collecting and reflecting the will of faculty and students	2	1.9
Others	12	11.4	Others	4	3.8
No response	21	20.0	No response	34	32.4
Total	105	100.0	Total	105	100.0

질문 5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심화학습을 지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는 여전히 지식중심의 암기식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많은 교과목에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항이 변형되거나 그대로 출제됨으로써 족보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바탕학습 과정

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필기시험이 50% 정도 반영됨으로써 학생들은 족보에 의존하고, 지식을 암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질문 6 : 교수와 학생 상호간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는가?

블록 형태의 강의로 각 교수가 담당하는 시

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강의 시간이 줄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전보다 부족해졌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되면서 학생 성적관리,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직접 관련되지 않게 되었으며, 교수들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는 줄어들었다.

질문 7 : 교수들의 교육내용이 변화되었는가?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강의시간이 축소되고, 강의가 교실의 교과목 중심에서 계통 및 장기중심 통합강의로 변화되었으나, 과거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수정이 미흡하였다. 교수들은 동일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과거보다 반 정도로 축소된 교육 시간에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다루어짐에 따라 학습곤란을 호소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당시 학습목표를 수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으나,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질문 8 :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교육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태도를 여전히 갖고 암기위주, 지식습득의 학습태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바탕학습은 자율학습 및 토론을 위주로 한 학습이나 다양한 자료검색보다는 인터넷 지식검색을 통해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 선택과목 수업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오후 자율학습 시간의 많은 부분을 자율학습실 등에

서 보내고 있으나, 대부분은 오전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 암기, 시험 준비 정도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한 교재, 보충자료 등이 부족하고, 각각의 수업에서 자율학습을 위한 참고자료들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중간 및 분기 말 종합평가 후 학생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이 공개되지 않는 교과목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정도를 교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질문 9 : 교수학습 지원 및 관리는 적절하였는가?

선택과목, 임상의학입문 및 의료와 사회 등의 과목 개설로 20-30명의 소형 강의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3-5개의 소형 강의실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강의실 사정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다. 강의실 컴퓨터, LCD, A/V시스템 등 교육기자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어 강의 및 수업이 지연되고, 문제바탕학습, 일반 선택과목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학교육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의 공식적인 직제에 속해 있지 않다. 또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대학과 의학교육지원실의 업무분장, 보고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질문 10 : 교과목 책임교수의 역할과 권한은 적절한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책임교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교실에 주어졌

던 권한이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목 책임 교수들은 교과목 내용 조정, 강의담당 교수 선정 등에 관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학 내 역학관계로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학년 책임교수, 분기 책임교수 및 과목 책임교수의 책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교과목 책임교수들에 충분한 교육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 찰

2004년 개편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21세기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교실별 교과목을 계통별, 장기별 과목으로 개편하여 강의의 통합성을 증대하고, 강의 및 실습을 오전시간으로 국한시켜 학생들의 강의집중도와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였다. 또한 문제바탕학습, 임상 의학입문 등을 오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 교육을 지향하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교수자 인식 조사와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과정 개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im(1996)은 교육

과정 개선에서 분명한 명분과 이에 대한 교수들의 전폭적인 동의 및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 82.9%의 교수들이 교육과정 개편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아직도 많은 교수들이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많은 논란들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의 목표에 대한 교수들의 이해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개편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성공 사례들을 발굴하고 구성원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과목 편성,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과목 책임 교수에게 부여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은 교과목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교실 단위에서 개별 교수에게로 이동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목 책임교수가 과목의 교육 내용을 조정하고 담당 강사를 선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육과정 개편이 형식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교과목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교실 주임교수들의 책임과 권한이 교과목 책임 교수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과목 책임 교수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목 책임교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변화된 교육 책무에 적절한 교수업적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문제바탕학습의 진행, 선택 교육과정의 개설 등 교수들의 교육

책무가 변화되었다.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과 시간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교수들의 인식과 교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저하시킨다. 특히, 연구업적과 진료 실적이 강조되는 의과대학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교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교육에 대한 업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수들의 책무성 수행 유인이 되는 적절한 업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Kim et al., 2002).

넷째,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생 평가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학생들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좋은 학업성취를 하기 위해 평가에 민감하게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수들의 시험 문제나 평가 방법이 과거와 달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암기식, 족보위주의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표면적인 학습이 아닌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내 시험 문제 변경 등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행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충분한 지원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실중심의 교육과정이 대학 중심의 중앙 집중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단위에서의 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Kim (2002)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충분한 지원 인력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기존의 학사 운영 인력 4명과는 별도로 4명의 지원인력을 채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 조직의 체계화는 문제점으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시 교육과정을 운영에 참여할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형식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yler(1949)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습목표의 설정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경험의 선정과 내용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합교육의 형식적인 틀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통합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통합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선은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개선 후 교육과정의 성과와 실패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보다는 교육과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평가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Fitzpatrick, Sanders & Worthen(2004)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이 계획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피드백을 위한 형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uilbert(1987)도 교육과정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평가는 형성평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교수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10개의 질문을 사용하여 포커스 그룹을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개선 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과정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곱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평가 사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 평가의 실제 사례로 다른 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 개선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Chagn, B.H., Lee, Y.C., Kim, B.W., Kang, D.S., Kwak, Y.S., Kang, L.C., Seo, K.S., Kim, I.K., Lee, J.M., Jeong, S.H., Kim, J.Y., Kim, I.S., & Kim H.J. (2001). The Implemen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its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3(1), 91-106.
- Chung, M.H., Park, I.C., Kim, K.S., Seo, I., Yang, E.B., Lee, W.J., Lee, C.G., Lee, H.Y., Chun, W.T., Han, K.H., Kim, E.K., & Nam, J.H. (2005). A report of curriculum evaluation. Yon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Fitzpatrick, J.L., Sanders, J.R., & Worthen, B.R. (2004).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3r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Guilbert, J.J.(1987). Educational handbook for health personnel (6th ed.).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Kern, D.E., Thomas, P.A., Howard, D.M., & Bass, E.B. (1998). Curriculum development for medical education: A six step approach.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m, J.H., Kim, J.Y., Son, H.J., Choi, Y.H., Hong, K.P., Ahn, B.H., Uhm, D.Y., Chin, Y.E., & Seo, J.D.(2004). A qualitative evalu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um by students' perception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2), 179-193.
- Kim, S., Lee, M.S., Chung, M.H., & Ohrr, H.C. (2002). A study on educational accountability of faculty in medical schools. *Korean Journal of Medical*

- Education*, 14(2), 245-256.
- Kim, Y.I. (1996). Guideline and strategy for curricular development in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8(1), 71-82.
- Kim, Y.I. (2002). Facilitating and impeding factors for promotion of educational planning in young medical schoo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4(2), 227-244.
- Lee, Y.M., So, Y.H., Ahn, D.S., & Park, S.H. (2002). Evaluating clinical teaching in medicin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4(2), 293-300.
- Madaus, G.F., & Kellagham, T. (2000). Models, metaphors, and definitions in evaluation. In D.L. Stufflebeam, G.F. Madaus, & T. Kellaghan(Eds.). *Evaluation models: Viewpoints on educational and human services evaluation second education* (2nd ed., pp.274-317).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Ohrr, H.C., Kim, S., Lee, M.S., & Chung, M.H. (2001). A study on evaluation of clinical clerkship.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3(1), 69-78.
- Ornstein, A.C., & Hunkins, F.P. (1988). *Curriculum: Foundations, principles, and issues* (3rd ed.). MA: Allyn & Bacon.
- Park, J.H., & Kim, S. (2004). Evaluating clinical clerkship in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2), 157-167.
- Park, S.G. (2004). Result of midterm evaluation in internal medicine clinical clerkship in one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2), 147-155.
- Stufflebeam, D.L. (2000). Foundational models for 21st century program evaluation. In D.L. Stufflebeam, G.F. Madaus, & T. Kellaghan(Eds.). *Evaluation models: Viewpoints on educational and human services evaluation second education*(2nd ed., pp.274-317).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yler, R.W. (1949).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